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121호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발행인 강기훈 /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 편집장 백채린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 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기획] 》 5면
우리대학 AI 챗봇 서비스 '흡또기'

[심층] 》 7면
보이스피싱의 덫에 걸린 청년들

[학술] 》 9면
프랑스 시위, 전 세계를 뒤흔들다

[인물] 》 12면
최용철 소방청장을 만나다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양 캠퍼스 내 공용 공간 사유화 문제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학업과 휴식을 위해 다양한 공용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 해당 공간의 자리를 장시간 독점하는 사유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짚어보고 올바른 공용 공간 이용을 위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자.

▶4면에서 계속

송송희 기자 13songhui@hufs.ac.kr

우리대학, 청년 취업지원정책 알리는 '2026 청년정책 집중홍보 WEEK' 운영

우리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캠퍼스 국제학사에서 청년들의 취업지원정책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2026 청년정책 집중홍보 WEEK'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거점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졸업생 특화프로그램 등 주요 취업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행사장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창구를 마련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생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현장에서는 제도별 지원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지원해 실질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을 도모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책 정보를 확인한 학생들에게 간식과 우리대학 마스코트 '부(BOO)' 스티커를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신근혜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장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고용정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맞춤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승우 기자 13seungwoo@hufs.ac.kr

"알고리즘 너머 진짜 세상을 읽는 법"… 우리대학,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초청 HUFS특강 개최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은 지난달 14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이하 이성철 사장)을 초청해 '2026 HUFS특강'을 개최했다. HUFS특강은 김덕술 유니스토리자산운용(주) 회장 겸 우리대학 총동문회장이 후원하고 HUFS특강 특별운영위원회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국제통상△외교△인문학 등 우리대학이 보유한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접목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들에게 인문학적 통찰과 미래 진로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성철 사장은 지난 1991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언론 환경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온 현직 언론인이다. 현재 한국일보 사장 겸 발행인을 맡고 있으며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와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 이성철 사장은 '알고리즘을 넘어 진짜 세상을 읽다'를 주제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언론 환경의 변화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조명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존한 정보 습득의 한계를 짚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HUFS특강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글로벌캠퍼스 '총장과의 대화' 개최, 학생과 소통하며 그리는 우리대학의 미래

지난 5일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권혁재 글캠 부총장△전학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부총장△홍종명 우리대학 교무처장 등이 자리했으며 김미형 글캠 학생인재개발처장과 박현빈(AI 24) 우리대학 글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기훈 총장은 "학생들과 항상 소통하고 호흡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학교의 발전 방향부터 단과대별 현안까지 깊은 고민을 공유하는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강기훈 총장은 총장 공약 이행 사항과 향후 로드맵을 공유했다. 강기훈 총장의 취임 이후 지난 8개월간 우리대학은 LG CNS나 네이버 클라우드 등 기업체와의 산학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해 외대 특화 AI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AI 융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과 타학교 간 교류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일본 도쿠시마현을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제주도에서도 제주대학교 계절수업 등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해 우리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대학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반응이 늘고 있음을 전한 강기훈 총장은 "우리대학 학생의 성공이 곧 우리대학의 자부심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학사 현장을 운영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사전 질의응답에서는 양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해 제출한 사전 질의서를 바탕으로 △송도캠퍼스(이하 송도캠)△시설 및 복지△미래 비전△재정△총장 공약△학사 및 지원 등 다양



한 현안을 다뤘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소규모 학과 계절학기 전공 교과목 개설 제약 문제에 대해 강기훈 총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늘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라며 전공별 재적 인원 규모를 고려한 개설 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FLEX 시험 응시 횟수와 관련해서는 대학 입장에서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학과 차원의 졸업 인증 관리와 수요에 따른 정책적 조절 여지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대학의 여러 학과와 학부에서 겪고 있는 전임 교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도 설캠과 글캠 전반에 걸쳐 총 20명의 전임 교원을 초빙하려 하고 있다"라며 "취업에 대한 부분과 연구 역량 및 이중·부전공 수강 학생들의 정원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학문 단위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23학년도 이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구조조정 학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재학생들이 학습권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수업을 폐강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해 2학기부터 전공 인정 학점 교류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정 비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처△산단△법인 등 전입금을 8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 자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한정된 공간 제약 속에서 신중하고 보수적인 심의를 거쳐 유휴 공간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 설캠 인문과학관 복합 기숙사 건립 및 글캠의 공학관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송도캠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바이오산업과 국제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운영될 송도캠을 우리대학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교육 우수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에 더해 강기훈 총장은 "설캠은 우리대학 고유의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부분을 특성화하고자 하며 글캠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의 특구로 특성화 사업을 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캠은 바이오 글로벌 캠퍼스로 성장시켜 각 캠퍼스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장 질의에서는 캠퍼스 간 균형 발전과 인식 격차 해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강기훈 총장은 "우리대학의 발전은 어느 한 캠퍼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의 발전"이라며 "각 캠퍼스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앞으로 세 캠퍼스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자원을 투입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

G-앵커사업단, 용인시와 지산학 협력 나섰다

우리대학 G-앵커사업단이 지역사회 및 산업체 연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G-앵커사업단은 경기도 지역 성장 인재양성체계 트랙 수행을 위해 설치된 산학협력 전담 조직이다. G-앵커사업단은 △기술 혁신 및 가치 창출△인력 양성△지산학 상생 협력△지·산·학 얼라이언스 고도화△창업 활성화△평생 교육 혁신의 6가지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역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앵커사업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용인특례시와 협력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통합교육을 운영했다. △로체시스템즈(RORZE SYSTEMS CORPORATION)△비엠아이텍(BMI CO.,LTD)△서플러스글로벌(SurplusGLOBAL)△애플트리(Apple Tree)△저스템(Justem)△지앤지인텍(GnG InTech) 6개 기업의 신입사원 25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임주원 우리대학 반도체전자공학부 교수가 총괄했다. 더불어 반도체전자공학부 교수진과 AI 반도체 전문 기업 '리벨리온(Rebellions Inc.)'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도체 8대 공정과 산업 전망△반도체 소자의 광·전기적 특성 분석△참여 기업 소개 및 담당 업무 공유△AI 활용 사례 등 기술·공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직무 기초 교육과 명지대학교 '팹(Fab)' 시설 견학을 연계해 기술적 전문성과 현장 이해를 넓혔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용인시 소재 요양시설의 어르신들과 대학생 봉사자가 함께하는 문화 교류 및 인지 개선 프로그램 'ART Friends'를 진행했다. '함춘너싱홈' 및 '서울간호전문요양원' 어르신 10명과 대학생 10명이 1 대 1로 짝을 이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RT Friends'는 미술 감상과 회상 활동을 연계한 3주간의 정서·인지 통합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방문을 넘어 회화와 같은 소근육 활동까지 실시된다. 사업단은 기존에 실시하던 보건소 연계 로봇 인지 교육에 이어 민간 요양시설까지 범위를 넓혀 다음 해 2월까지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G-앵커사업단 측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 통합교육을 마치며 "앞으로도 △대학△지자체△지역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Art Friends'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번 행사는 미술 감상을 매개로 어르신들의 인지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생들과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지역사회 요양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승우 기자 13seungwoo@hufs.ac.kr

모교 발전과 후배 사랑 실천하는 우리대학 동문들, 따뜻한 기부의 물결 이어져

우리대학의 발전과 후배들의 학업 지원을 위한 동문들의 발전 기금 및 장학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우리대학에서는 우리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탁식△장학금 수여식△헌정식이 개최됐다. 장학금을 후원한 동문과 동문 공동체는 "이 후원이 후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배움과 도전에 보탬이 되며 후배들이 이 성취를 사회와 우리대학에 환원하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미국 조명기업 벌브라이트(Bulbrite Industries, Inc.)의 설립자이자 우리대학 뉴욕동문회 이사장을 역임한 최언도(서양어·독일어 59) 회장은 지난달 23일 미화 10만 달러를 기탁했다. 이번 기부로 최언도 회장의 우리대학 누적 기부액은 5억 2천여만 원에 달하게 됐다. 기탁식에서는 정보전략팀이 우리대학의 언어 및 지역학 역량을 AI 기술과 접목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20일에는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한 김성만(상경·국통 74) 회장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 503호에서 '김성만 강의실' 헌정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국제통상학과 재학생△김강석 대외협력처장△김민정 대외부총장△김성만 회장의 가족△민희철 국제통상학과장△신근혜 학생·인재개발처장△외대기우회 학생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다졌다.

장학금 전달 및 약정도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우리대학 민주동문회 △경제적 여건△공동체를 위한 노력△학업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을 지원하고자 장학금 1억 원 지원을 약정했다. 같은 날 영어대학 동문회는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재학생 14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전달했다. 그동안 영어대학 동문회는 매년 장학금을 조성해 현재까지 총 92명의 학생에게 약 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지난달 7일에는 백창호(영어 72) 이사장과 이주예(서양어·프랑스어 74) 이사의 후원으로 설립된 '제4기 이백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돼 선발된 재학생 4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강기훈 총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향한 애정으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동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동문들의 소중한 나눔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으로 이어지고 학생들 또한 그 마음을 나누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강승우 기자 13seungwoo@hufs.ac.kr

우리대학 라오스어 교육 10주년 맞아 주한 라오스 대사관과 미래 협력 논의

지난달 14일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과 박경은 우리대학 태국학과 학과장은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서 라오스어 교육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신근혜 우리대학 학생·인재개발처장(이하 신근혜 처장)과 까이마니 어라분(Kaymany ORABOUNE) 주한 라오스 대사(이하 어라분 대사)는 '한국 라오스어 교육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교육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청년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신근혜 처장은 우리대학이 지난 2016년 라오스어 전공과목 개설 이후 △공개강좌△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통해 학습 기회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라오스어 학습을 지속하고 라오스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라분 대사는 우리나라의 라오스어 교육 10주년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리대학 교수진에 감사를 전하며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노력이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해 미래세대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대학은 지난 2016년 라오스어를 전공과목으로 개설했다. 이는 태국을 넘어 메콩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학생들의 지역 전문성과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에는 라오스어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의 지원 언어에 포함되면서 교육 기반이 더욱 확대됐다. 우리대학은 해당 사업을 통해 라오스어 표준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했으며 특수외국어능력평가에서도 라오스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 대학 및 주한 라오스 대사관과의 협력도 지속해 왔다. 우리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라오스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os, NUOL)△수파누봉대학교(Souphanouvong University)△주한 라오스 대사관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재 개발△교육 자문△학생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는 수파누봉대학교와 하계방학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현지 언어와 문화 체험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오스국립대학교와도 △공동연구△교육 자문△온라인 국외연수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주한 라오스 대사관은 우리나라 내 라오스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수은 우리대학 태국학과 박사(이하 김수은 박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에 김수은 박사는 "앞으로도 라오스어 교육을 발전시키고 라오스 사회와 문화를 아우르는 지역학 교육으로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다"라며 "양국 간 이해와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

우리대학 서울캠퍼스 내 서점 부재, 학생들의 교재 마련 대안은

지난해 3월 28일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서점 이문107 1호점이 폐점하며 설캠 내 정식 서점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2학기부터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사이버관 1층에 임시 서점을 마련해 교재를 판매했지만 매 학기 운영 기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전공 및 교양 서적을 실물로 구매해야 하는 학우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교재 판매처의 현주소△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대학 교재 판매처의 현주소

지난해 3월 우리대학 설캠 사이버관 1층에 위치하던 교내 서점 이문107 1호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문을 닫았다. 우리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운영했던 이문107 1호점은 △기념품샵△문구점△서점△카페 등 다양한 업종을 함께 운영해 왔다. 이문107 1호점 폐점 후 해당 자리에는 문구점 역할을 대신한 아트박스가 들어왔으며 기념품샵 역시 국제학사 1층에 마련됐으나 서점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문107 1호점이 폐업한 후 지난해 2학기부터 이번 학기까지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3주에서 한 달간 임시 서점을 운영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 등 서울권의 다른 대학에서도 같은 이유로 교내 서점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다. 학내 서점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는 학생들의 전자책 선호 현상이 자리해 있다. 최근 휴대성과 가격의 이점 등으로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구입하거나 PDF 파일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행된 교보문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학 교재 매출액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 교재 매출 중 종이책 대비 전자책 비중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1년 7.1%에서 지난해 기준 29.9%까지 치솟았다. 4년간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만이 가지고 있던 기능의 부재로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불편 사항으로는 △계절학기 기간 서점 이용 불가 문제△도서 구매 전 내용 확인의 어려움△온라인 주문 배송 기간으로 인한 즉시 구매 불가능이 있다. 우리대학 재학생 박지훈(사회·미디어 26) 씨는 "온라인에서 수업에 필요한 책을 사려면 배송을 기다려야 하지만 서점에 가면 급하게 교재가 필요할 때도 바로 구입해서 읽을 수 있다"라며 "비싼 전공책을 읽어보지 않고 샀다가 내용이 기대와 다르면 후회할 수 있어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훑어보고 구매를 결정한다"라고 교내 서점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우리대학 재학생 A 씨 역시 "수업에서 종이책 구매가 필수인 강의가 있었으나 해당 서적이 온라인에서 절판돼 곤란했다"라고 밝혔다. 학기 초 3주가량 열리는 임시 서점은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은 교재 판매처가 열리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자주 사용하는 우리대학 앱에서 알림을 받거나 우리대학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를 본 적이 없어서 임시 서점이 운영되는 줄도 몰랐었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학사 일정이 짧은 계절학기 기간에는 임시 서점조차도 열리지 않기에 학생들의 교재 구매 선택지가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절학기 기간 운영△다양한 경로를 통한 운영 일정 공지△과사무실 전공 서적 판매 이용△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생협) 서점 마련 고려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이 운영하는 임시 서점은 정규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에만 운영되고 있어 계절학기 수강생도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시 서점은 일정 기간에만 열리기 때문에 더 충분한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식출판콘텐츠원은 "정규 학기 개강으로부터 1주에서 2주 전 임시 서점 운영에 대한 내용을 학교 메일로 발송하며 우리대학 공식 마스코트 Boo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도 공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시 서점이 운영되는 △기간△시간△장소를 더 많은 학우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대학 공식 홈페이지나 앱 메시지 등 보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지해 봄 직하다.

전공 교재의 경우 과사무실에서의 교재 판매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우리대학 독일어통번역학과에서는 1학년과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독일어 연습 1~4' 교재를 과사무실에서 판매 중이다. 독일어통번역학과사무실에서는 출판사를 통해 교재를 구매하고 남는 교재는 출판사에 환불 처리하고 있다. 독일어통번역학과 측은 "교내 서점과 무관하게 학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과사무실 차원에서 진행하는 업무이다"라고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타 과사무실에서도 이를 참고해 방안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의 전공 서적 구매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설캠에서도 대학생협 서점 마련을 고려해 볼 만하다.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학내에 영업 구역을 지정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현재 우리대학 생협인 '한국외국어대학교생활협동조합'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 '생협 어울림 매장'이라는 이름의 종합 매장에서 서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매장은 정규 학기를 비롯해 계절학기 기간에도 수업 운영 시간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중이다. 우리대학 설캠에도 대학생협을 통해 서점을 운영한다면 교내 서점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필요한 교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전북대학교 대학생협은 지난해 교내 서점을 개소했으며 계절학기에도 이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동국대학교 대학생협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공 및 교양 교재를 판매하고 있어 참고해 봄 직하다. 우리대학 교내 서점의 빈자리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재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후속보도

유고결석 제도, 변화에도 여전한 한계와 과제

지난 1084호에서는 불명확한 유고결석 기준으로 인한 문제를 다뤘다. 한편 지난 2024년 2월 유고결석계 규정이 개편돼 △신청 절차 간소화△인정 사유 확대△예비군 학생 권리 보장 등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적인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병원급 이상의 입원이 아닐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교수별 유고결석 인정 기준 역시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본 기사를 통해 △유고결석 제도의 변화와 한계△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유고결석 제도의 변화와 한계

유고결석 제도는 유고결석 및 결시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에 대해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2024년 유고결석 및 결시규정을 개정하며 인정 사유와 신청 절차를 정비했다. 먼저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입원과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및 치료를 구분해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별도의 인정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던 출산도 추가해 본인의 출산은 20일 배우자의 출산은 10일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게 출결 및 성적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며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 자료 제공 등 학습권 보호 조항도 마련했다. 나아가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개정 전에는 학생이 유고결석 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교수에게 전달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유고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인정 범위와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고결석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 했을 때 불편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0.9%가 '예'라고 답했다. 특히 불가피한 특정 사유가 여전히 규정의 인정 범위 밖에 존재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질병 및 상해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 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래진료나 통원 치료만으로는 유고결석을 인정받기 어렵다. 몸이 아파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병원급 기관의 입원이 아니라면 출석 인정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심한 장염에 걸린 상황에서도 병원급 기관의 입원이 아니라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그냥 결석 처리됐던 경험이 있다"라며 "법정 감염병이나 병원급 기관의 입원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질병까지 유고결석 인정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학내 공식 행사에서도 유고결석 인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 일례로 총학생회 주관의 기업탐방은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 9월 진행된 기업탐방에 참여했던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기업탐방에 참여하였으나 참가확인서만 발급되고 공식적으로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아 곤란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에서 규정한 유고결석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대학 유고결석 및 결시규정에 따르면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유고결석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대학 재학생 C 씨는 "어떤 교수님은 생리공결을 사용하려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증빙서류를 받아오라고 했다"라며 규정 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우리대학 재학생 D 씨는 "규정된 유고결석 사유인 생리공결 등의 사유는 인정해주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두 번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교수님도 있었다고 밝혀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유고결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 밖에 있더라도 수업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인정 범위의 확대 및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타 대학 사례를 참고 해 봄 직하다. 동서대학교의 경우 외래진료는 통원 날짜와 질병명 또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통원 당일을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원만 인정되는 우리대학의 질병 및 상해 인정 기준을 재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다. 다만 외래진료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진료 내용과 수업 참여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유형 및 상해별 인정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어 교수별 출석 인정 기준의 차이 개선 및 규정에 따른 일률적 기준 적용도 시급하다. 외대학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고결석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중 63.6%가 '교수별 출석 인정 기준의 차이 개선'을 꼽았다. 수업 특성에 따라 담당 교수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유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달라지면 학생들의 혼란이 커진다. 이에 신청 절차의 전산화를 개선 방안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유레카 통합행정 시스템'에서 출석 인정을 신청하고 담당 교원이 승인 또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숭실대학교도 'u-SAINT'에서 유고결석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학생팀의 승인을 거쳐 담당 교수의 확인 후 최종 승인된다. 우리대학도 온라인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유고결석계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승인 과정을 운영해 볼 수 있다.

유고결석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일부 절차와 인정 사유가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준의 차이와 인정 범위의 한계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제도를 재검토하고 일관된 인정 기준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유고결석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양 캠퍼스 내 공용 공간 사유화 문제

우리대학은 학생들의 학업과 휴식을 위해 다양한 공용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캠퍼스 내의 무분별한 자리 사유화 문제로 공용 공간을 이용하려는 학우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시간 짐을 방치해 공용 좌석을 사유화하는 행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학내 구성원 간 주요 갈등 요소로 떠오른 상황이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공용 공간 사유화 실태△우리대학 공용 공간 사유화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대학 공용 공간 사유화 실태

최근 우리대학 내 자율 이용 공간의 상당수가 공용 공간의 기능을 잃은 채 일부 학생들의 개인 짐 보관소로 전락했다. 지난 9월 우리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사이버관 2층 경영대학 디지털도서관 좌석의 약 90%가 짐으로 사석화돼 있으며 정작 착석 인원은 10%에 불과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외대학보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좌석에 짐만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공용 공간임에도 특정 학생들이 개인 독서실처럼 전유하고 있어 정작 이용이 절실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설캠 도서관 열람실과 1층 로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개방 직후 짐만 두고 늦은 오후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석화가 일상화됐다. 도서관 열람실은 우리대학 모바일ID 앱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용 시간이 끝난 후까지도 짐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대학 재학생 염채원(사회·미디어 24) 씨는 “비어 있는 자리가 많음에도 자리에 올려진 짐 때문에 정작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발길을 돌린다”라고 토로했다. 정지우(사범·한교 25) 씨 역시 “빈자리를 예약해도 기존 사용자의 짐이 놓여 있어 곤란한 적이 많았다”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는 설캠만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백년관 라운지 또한 책이나 가방만 둔 채 5~6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글캠 재학생 B 씨는 “시험 기간에는 낮에 짐만 두고 저녁 늦게 공부하러 오는 경우도 봤다”라며 “남의 짐을 마음대로 치우기가 부담스러워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라고 공용 공간 독점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우리대학 설캠 사이버관 경영대학 디지털도서관의 모습

실제로 사석화로 인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8%가 사석화로 인해 공용 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8.4%가 ‘주 3회 이상 겪는다’라고 밝혀 사석화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주요 사석화 발생 장소로는 설캠의 경우 △도서관 로비△사이버관△스마트플라자△인문관 및 교수회관 식당으로 나타났으며 글캠의 경우 백년관 라운지와 도서관 열람실 등이 꼽혔다. 한편 앞선 설문조사 결과 자리를 비우는 평균 시간은 1시간 이상에서 3시간 미만이 64.7%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3시간 이상에서 5시간 미만도 23.5%에 달해 장시간 좌석 독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직하게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정작 공용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금전 및 시간적 피해를 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공용 공간의 사유화로 인해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다. 에타에서는 ‘밥을 먹거나 수업을 듣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까지 사석화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가혹하다’라는 의견과 ‘엄연한 공용 공간 독점이자 이기주의이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리대학 공용 공간 사유화의 원인

공용 공간 사유화의 가장 큰 원인은 △개인주의 및 동조 심리△짐을 들고 이동하기 번거롭다는 일상적 불편함△학교 측의 명확한 제재나 가이드라인 없이 방치되고 있는 환경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내 공용 공간에서 자리를 비우며 짐을 놓아둔 경험이 있다는 우리대학 재학생 C 씨는 “공용 공간을 사석화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사석화가 학내에 만연하다 보니 나만 정직하게 짐을 빼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사석화를 반복하게 된다”라며 잘못된 동조 심리와 개인주의를 보여줬다. 또한 우리대학 재학생 D 씨 역시 “수업 사이의 공강 시간이나 다음 시험공부를 준비할 때 학내 학습 공간을 다시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라며 “짐을 싸서 나갔다가 새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해 몇십 분씩 이동하며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남들처럼 짐을 자리에 두고 다녀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진다”라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는 사석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제가 부재하다는 원인도 존재한다. 사석화 문제가 빈번히 제기돼 왔던 설캠 사이버관 경영대학 디지털도서관 역시 사석화의 기준과 규제가 부족하다. 외대학보가 설캠 행정지원처 건설기획팀에 관리 현황을 문의한 결과 “전문 인력이 상주해 있지 않기에 순찰과 감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며 관리가 부재한 상태이다”라며 “중앙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이들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다 보니 사유화가 고착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양 캠퍼스 도서관과 글캠의 백년관 라운지 역시 사석화의 정의와 관련 규제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사석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생긴다. 현행 우리대학 학칙 도서관 규정 제27조(이용 수칙)에 명시된 ‘도서관 이용자는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가 부여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대학 도서관학생위원회는 이용 수칙의 사석화를 ‘예약되지 않은 자리에 장시간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사석화 적발 시 도서관학생위원회 측에서 물건 회수 및 경고장을 비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학칙에는 명확한 시간적 정의와 장기 방치된 짐 수거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침이 담기지 못한 상태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공용 공간 사유화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유화의 정의와 실효성 있는 사유화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대학의 경우 하위 학칙 및 이용 지침 자체에 사석화의 정의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용 공간 독점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도서관 경고자 규정 내에 ‘사석화란 도서관 내 짐을 방치하는 행위 및 좌석을 배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사석화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국립공주대학교의 경우 도서관자치위원회 측에서 사석화의 기준을 ‘개인 물품을 정리하지 않고 3시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대학 역시 현재의 모호한 기준에서 벗어나 사석화의 정의를 밝히고 더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학칙으로 명시한다면 사유화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참고해 봄 직하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순찰 인프라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글캠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서관 사석화 단속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관 적치 물품 단속이 2주당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 즉 물품에 대한 단속만 긴 간격으로 진행돼 매시간 발생하는 사석화 문제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사석화의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를 바탕으로 관리를 이어가야 하며 순찰 횟수 또한 늘려 학생들이 겪는 사석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순찰 범위를 열람실에서 △백년관 라운지△사이버관△양 캠퍼스 도서관 1층 로비까지 확대해 사석화가 만연한 장소들 전반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관리 범주 또한 넓힌다면 공간 독점으로 인한 학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 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부드러운 에티켓 문화 조성도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설캠 도서관에는 불편 사항을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관 에티켓 카드’가 비치돼 있다.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타인을 불편하게 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라는 문구가 적힌 이 카드는 감정적인 갈등 없이 익명으로 자신의 당부를 건넬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된다. 설캠 도서관 정보봉사파트 관계자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홍보 및 관리 미비로 현재의 정확한 실효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시행 초기 학우 간에 직접 말하기 껄끄러운 당부를 에티켓 카드로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에티켓 카드를 설캠 사이버관 열람실과 글캠 백년관 라운지 등 캠퍼스 전역으로 확대 비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용 공간 사유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 내 공용 공간은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무단으로 점유할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니다. 학교 측의 명확한 행정적 개선과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출 때 비로소 상생하는 캠퍼스 문화가 완성될 것이다.

송송희 기자 13songhui@hufs.ac.kr

우리대학 AI 챗봇 서비스 흡또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해결할 과제는

지난 9월 21일 우리대학의 학사 안내 챗봇 '흡또기'가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흡또기는 학생들이 묻는 질문에 답하는 대화형 챗봇으로 △교내 여러 사이트 내 공지△학교 홈페이지△학과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학사 정보를 하나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보 창구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아직 불완전한 면이 있어 극복해야 할 과제들 역시 존재한다. 본 기사를 통해 △흡또기 개발 현황△흡또기의 개선 과제△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흡또기 개발 현황

AI 챗봇 서비스 흡또기는 우리대학 학생과 정보처로 구성된 PoC*팀이 추진한 협업 프로젝트다. 정보처 관계자는 "우리대학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교생활과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다"라며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적으로 겪는 정보 탐색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우리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묻거나 담당 부서의 답변을 기다려야 했고 직원은 비슷한 질문에 반복해서 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학생 A 씨는 "졸업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학사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잦은 공휴일과 방학 단축근무로 답이 늦어져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흡또기는 학생들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교직원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를 갖는다.

흡또기는 OpenAI의 AI 모델을 활용해 △시간표△학과 정보△학내 공지△학사 규정 등 우리대학의 공개 자료를 근거로 답변을 생성하며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모두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9월 21일 에브리타임을 통해 베타 서비스 출시를 알린 뒤 학과별 단체 공지방과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이어왔다. 지난 3일 기준 누적 사용자는 429명이며 누적 질문은 1,759건에 달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수업 수강△이수학점△졸업 요건△장학금 관련 문의가 있었다.

흡또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정보처는 △신청 기간△절차△졸업 요건처럼 공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볼 것을 권했다. 예컨대 "지금 잔디광장에 온 연예인이 누구야?"처럼 현장 상황을 묻는 질문은 근거 자료가 없어 답하기 어렵다. 반면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와 청랑제와 같은 교내 행사 자료는 답변 시기에 맞춰 반영하고 있어 행사 기간에 출연진이나 공연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흡또기는 답변의 근거가 된 원문을 함께 안내하므로 학생은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질문 시 △학번△연락처△성적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질문 내용은 답변 생성을 위해 외부 AI 서비스인 OpenAI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흡또기의 개선 과제

이처럼 흡또기는 학사 생활의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정식 출시를 앞두고 개선해야 할 과제 역시 남아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답변 근거의 오류다. 흡또기는 릴리즈노트**를 공개한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아홉 차례 업데이트를 거치며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흡또기의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거 자료가 섞이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우리대학 한국학과 교수진을 묻는 질문에 아프리카학부 교수진 명단을 제공하거나 규정과 계약서의 근거가 섞여 잘못 연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지 자료가 갱신된 뒤 신청 마감일과 학기 정보가 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흡또기는 하단 근거 영역에 출처를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답변은 수강편람으로만 출처를 표시해 학생이 문서의 어느 부분을 근거로 삼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외국어 지원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우리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은 전체 학생 19,648명 중 3,846명으로 전체 학생의 19.57%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흡또기가 지원하는 언어는 영어뿐이며 실제 외대학보의 취재 결과 사용자가 독일어로 질문하자 흡또기는 한국어로 답하는 등 외국어 입력 시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변을 영어로 번역하는 기능은 있으나 지난달 26일 업데이트 전까지는 학년을 나열하거나 원화 금액이 포함된 답변을 번역하면 실패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어 안내가 불완전하면 유학생은 학사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현재 흡또기의 접근성이 낮아 챗봇 서비스로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흡또기는 우리대학 홈페이지나 종합정보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사이트(chat.hufs.ac.kr)에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정보처는 "별도 사이트로 운영하면 학교 홈페이지와 포털에 미치는 불필요한 영향을 줄이면서 기능과 답변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바로 접근할 수 없다면 기능이 좋더라도 이용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흡또기는 공개 자료만을 근거로 답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외대학보가 "지금까지 들은 수업 기준으로 졸업까지 몇 학점 남았어?"라고 묻자 흡또기는 학과별 졸업 요건만 포괄적으로 안내했다. 정보처에 따르면 질문 기록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학연도△재학 상황△학과를 덧붙여 구체적인 조건을 묻는 경우가 확인되는 만큼 개인 맞춤형 안내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개인화된 질문엔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함께한다. 권고 문구 이외의 방지 장치가 없어 실수로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안내를 위해선 학생 개별의 개인정보가 요구되나 현재 흡또기는 Open AI 모델을 사용해 외부로 정보를 전송하기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이를 입력하지 말 것을 권고 중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정보처에 따르면 흡또기는 이달 말 △학과 정보△학내 공지△학사 규정 등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개인의 교과와 비교과 이수 내역을 반영한 맞춤형 대화 서비스는 보안 검토를 거쳐 다음 해 1학기 개강에 맞춰 정식 오픈하는 것이 목표다. 성공적인 정식 출시를 위해서는 남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근거 부정확성 문제에 대해 정보처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을 밝혔다.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정 평가 문항으로 새 버전을 배포할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성능을 점검 및 비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별도로 실제 사용자 질문도 평가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적절히 답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챗봇이 충분히 답하지 못했거나 직원 확인이 필요했던 질문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거나 검색과 답변 방식을 고쳐 보완한다. 학생들은 챗봇 화면의 개선 의견 남기기와 답변 별 평가 기능으로 오류를 알릴 수 있다. 정보처는 접수된 내용을 보통 2~3일 안에 반영하고 늦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처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직원 검토를 통해 근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교한 출처 표기를 병행한다면 학생들이 흡또기를 더욱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지원 사례로는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콜봇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지난 7월 도입한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서비스 콜봇은 한국어를 비롯해 총 8개 국어로 24시간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흡또기 또한 질문 언어를 인식해 같은 언어로 답하고 유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외국어 답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고정 평가 문항에 함께 포함한다면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서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인 우리대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접근성과 개인화에 대해 정보처는 공식 오픈 때 학교 홈페이지에 챗봇 위젯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개인화는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는 챗봇에 로그인하면 △공결△등록 내역△성적 확인△수강 신청△시간표△장학 6개 분야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정보처 역시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학생의 이수 내역과 학적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청 절차를 돕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개인화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따르는 만큼 정보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질문을 감지하기 위해 우선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후에는 민감정보를 탐지하는 전용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 서비스 기간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하고 개발팀이 이를 꾸준히 반영해 흡또기가 비로소 학생들이 믿고 쓰는 학사 안내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

*PoC(Proof of Concept): 새로운 △신기술△아이디어△프로젝트가 실제로 구현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기술 및 기능 검증 단계.

**릴리즈 노트(Release Note): △게임△소프트웨어△앱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될 때 그동안 달라진 변경 사항과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 사용자나 내부 관계자에게 알리는 문서.

이나연 기자 12nayeon@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7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9. 29.(화) ~ 10. 14.(수)	원서작성: 2026. 11. 13.(금) ~ 11. 24.(화)
면접 전형일	2026. 10. 31.(토)	2026. 12. 12.(토)
입학설명회	2026. 11. 6.(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온라인 원서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 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전공(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9. 29.(화) ~ 10. 14.(수)	원서작성: 2026. 11. 13.(금) ~ 11. 24.(화)
면접 전형일	2026. 10. 31.(토)	2026. 12. 12.(토)
입학설명회	2026. 11. 6.(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원서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9.17.(목) ~ 10.2.(금)	2026.11.18.(수) ~ 12.1.(화)
면접전형	2026.10.17.(토) 10:00	2026.12.12.(토) 10:00
합격자 발표	2026.10.30.(금) 16:00 예정	2026.12.24.(목)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6.11.2.(월) ~ 11.6.(금)	2026.12.28.(월) ~ 12.31.(목)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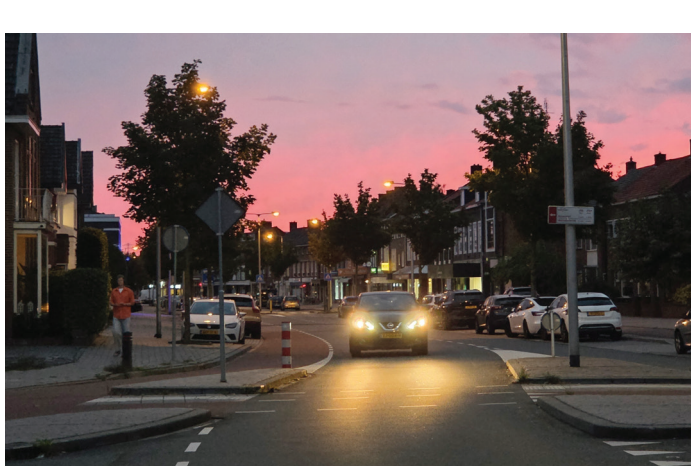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 페 이 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네덜란드 소도시에서 요양하기

주변에선 인도어과에 재학 중인 내가 왜 네덜란드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는지 궁금해한다. 다들 거창한 이유를 기대하겠지만 사실 특별한 이유는 아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2년간 대학 생활을 하며 알게 모르게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중 SNS에서 본 네덜란드 소도시에서의 일상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막연히 네덜란드 소도시에서 살아보고 싶단 생각을 하게 됐다. 지원 과정에서 고











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공항과 가까운 대도시를 선호하다 보니 나 역시 1지망으로는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를 썼다. 하지만 서울에서 벗어나 여유를 얻고자 교환학생을 결심했던 것을 떠올리고 2지망엔 네덜란드 동부의 소도시 엔스헤더(Enschede)에 위치한 삭시온(Saxion) 대학교를 적어 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껏 선택한 덕분에 지금 난 평화로운 소도시에서 만족스러운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 다시 돌아간다면 고민 없이 지금의 대학교를 1지망으로 적을 것이다.

내 교환학생 생활의 좌우명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다. 그래서 부전공인 경영학과 관련된 수강 학과를 정할 때도 '어려워도 한번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평소 어려워하던 회계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IFA(International Finance & Accounting) 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그렇게 선택한 IFA 강의실엔 한국인이 나밖에 없었다. 기숙사엔 한국인 학생들이 꽤 있어서 금세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IFA 학과엔 한 명도 없어서 OT를 비롯한 모든 학과 행사에 홀로 참여하게 됐다. 다행히 개강 전 신입생 및 교환학생들에게 마련된 'Intro'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은 조 학생들과 안면을 트게 됐다. 개강 첫날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용기 내 물어본 덕분에 개강 3개월 차인 지금은 기숙사에도 놀러 오고 쇼핑도 다니는 친한 친구가 생겼다.

나는 평소 우리나라에서 취미 생활로 요가를 해와서 네덜란드에 와서도 요가원에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뻣뻣한 편에 속했던 내가 여기에선 유연하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매주 요가원에 갈수록 아는 얼굴이 늘어도 많았다. 그럼에도 △시장에 장 보러 가기△주말 아침 산책하기△하교 후 택배 찾으러 가기△함께 보드게임 하기 등 친구들의 제안에 선뜻 응한 덕분에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예전의 나라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을 때 다른 일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남은 교환학생 생활 동안에도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가고 싶다.

이유빈(아시아 · 인도어 24)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기에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도 현지에서 취미 생활 하나 정도는 수업이나 모임을 통해 참여해보길 추천하고 싶다.

네덜란드에 입국한 후에 한 달 동안은 공강 날이나 주말에도 각종 행정 처리를 해야 했고 과제와 수업을 따라가느라 지치는 날

읽어서 세계속으로

러시아

<이반 일리치의 죽음>
- 죽음 앞에 선 우리에게 마침내 남는 것 -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저자 레프 톨스토이(Leo Tolstoy)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을 대표하는 대문호이자 사상가이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명예와 열정을 쫓았으나 중년 이후 깊은 정신적 방황과 회심을 겪으며 △국가 권력의 도덕적 부패△물질주의△제도화된 종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신분과 위선적 도덕률에 얽매인 삶의 무의미함을 파헤치며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그 너머의 사랑의 가치를 글로 풀어쓰는 작가였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지난 1886년 발표된 중편 소설로 성공한 관료가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삶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Ivan Ilyich)는 오직 △계급 상승△귀족 사회의 겉치레△출세만을 삶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던 판사였다. 커튼을 달다 옆구리를 부딪친 사소한 사고에서 시작된 질병과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껏 추구했던 바가 모두 부질없는 껍데기였음을 깨닫는다. 주변 동료들과 가족들조차 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그의 빈자리가 가져올 승진 가능성과 재산 상속이라는 이익 계산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오늘날 현대 사회 역시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철저히 무관심하다. 기술과 의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소외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 뒤로 쉽게 은폐된다. 동시에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기능을 다 한 이들이 처리되는 절차로 나타난다. 공동체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보다 불편한 비극을 외면하려 하고 죽음은 오직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작품 속에서 이반 일리치가 겪는 가장 힘겨운 고통 역시 육체적 통증이 아니라 상류 사회의 위선과 냉소 속에서 마주한 고독이었다. 그런 그에게 위로와 힘이 돼준 인물은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 게라심(Gerasim)뿐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아픈 다리를 흔쾌히 자신의 어깨에 얹어주던 게라심의 거짓 없는 헌신은 사회적 무관심으로 점철된 세상 속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는 참된 인간성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준다.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의 엄격한 신분 질서와 속물적인 관료주의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러시아 관료제에 대한 먼 옛날의 비판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글은 상실된 인간성을 직시하게 만들고 서열화된 경쟁과 물질적 성취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소외를 방관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부질없음을 깨달았던 이반 일리치의 모습은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란 무엇인지 보여준다.

송송희 기자 13songhui@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09.16(수) ~ 10.07(수)	2026.11.16(월) ~ 12.07(월)
고사장 발표	2026.10.14(수) 15:00	2026.12.09(수) 15:00
면접전형	2026.10.17(토) 10:00 예정	2026.12.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10.30(금) 15:00	2026.12.2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11.02(월) ~ 11.06(금)	2026.12.28(월) ~ 12.31(목)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Certificate Program(Columbia Univ.), Exchange Program(Univ. of Hawaii at Manoa)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논문 · 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9. 16(수) ~ 10. 7(수)	2026. 11. 16(월) ~ 12. 2(수)
고사장 발표	2026. 10. 14(수) 15:00	2026. 12. 9(수) 15:00
면접전형	2026. 10. 17(토) 10:00 예정	2026. 12. 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10. 30(금) 15:00	2026. 12. 2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11. 2(월) ~ 11.6(금)	2026. 12. 28(월) ~ 12. 31(목)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및 경찰, 소방 등 사회안전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실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생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실시간 온라인 중심 수업, 학기별 2회 특강 및 원생 간담회 진행
라. 국가안보전공 『학 · 군 제휴』 협약에 따라 최대 6학점까지 학점 인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ublic Leadership

사법기관 사칭부터 숙박업소 감금까지… 청년 위협하는 신종 피싱 범죄

전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사칭형 사기 범죄가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발표한 금융 사기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 사기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사회 초년생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청년 세대를 표적 삼은 기관 사칭형 범죄 조직 '대동단결'이 대대적으로 검거되며 청년 피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청년층을 겨냥한 피싱 범죄 현황△신종 피싱 범죄의 청년 표적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층을 겨냥한 피싱 범죄 현황

청년층 대상 기관 사칭형 범죄의 심각성은 최근 검거된 대규모 범죄 조직 사건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범죄 조직 '대동단결'은 △검사△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법원 사무관 등을 사칭해 사회 초년생 110명으로부터 약 81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협박한 뒤 약식 수사와 임시 보호 조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격리했다. 이어 매시간 위치를 보고하도록 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93%가 2030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1인당 피해액은 평균 7,3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달했다.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기관 사칭형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0대 취업 준비생이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전 재산을 갈취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부터 지난달 보이스 피싱에 속아 사흘간 모텔에 스스로 감금됐던 30대가 구조된 사건까지 청년층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 유형이 대출 사기형에서 기관 사칭형으로 변모한 것과 연관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9,079건으로 지난 2024년에 비해 51.5% 증가했다. 나아가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6,753억 원으로 전체 피싱 피해액의 7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4년 기관 사칭형 피해액에 비해 167.1% 증가한 수치다. 건당 피해액 역시 평균 4,218만 원에서 7,438만 원으로 76.3% 상승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피해 구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20대 이하 피해자는 3,748명이었으며 30대는 1,013명으로 두 연령층의 합계는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2.5%에 달했다. 특히 20대 이하는 2년 연속 전체 피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피해자 수 또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여기에 30대 피해자 수가 524명에서 1,013명으로 무려 93.3% 폭증한 것에서 사법 절차 경험이 부족한 20대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자산 형성을 본격화하는 30대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종 피싱 범죄의 청년 표적 원인

이처럼 청년층 피해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최근 피싱 범죄가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하는 일명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진화한 데 있다. 이번 '대동단결' 사건에서도 범죄 조직이 사법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몰아세워 공포와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이 같은 심리적 압박이 청년층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사회 초년생의 사법 절차 무경험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 절차를 겪어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공범△구속 수사△기소 등의 사법 용어 앞에서 판단력을 잃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으로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청년 A 씨는 슬로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라며 "검찰청 번호로 연락이 오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른다고 하자 더욱 당황하도록 몰아세웠다"라며 이후 호텔에 머무는 동안 겪었던 모든 과정 역시 가스라이팅의 연속이었음을 털어놓았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자산 구조 역시 범죄의 표적이 된 결정적인 이유다.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금감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경우 자산의 73.8%에서 81.3%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금 탈취가 어렵다. 반면 39세 이하 청년층은 실물자산 비중이 58.9%에 불과하고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친 유동 자산 비중이 41.1%에 달한다. 여기에 비대면 신용대출 및 카드 발급 절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단순화되면서 범죄 조직 입장에서 청년층은 별도의 서류 작업이나 대면 절차 없이 단기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자금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상이 됐다.

국내 금융망의 감시를 피하려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법 고도화 또한 이들이 청년층을 겨냥하게 만든 요인이다. 과거 피싱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이나 계좌이체와 같은 국내 수거책을 통한 현금 인출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단속 강화로 자금 회수 경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외 반출로 수법이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거래소에서 USDT* 등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개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취한다. 해당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가입△본인인증△원화 입금 및 코인 매수△해외 지갑 주소로의 출금 절차는 디지털 기기와 금융 인터페이스에 미숙한 고령층에게는 실행시키기 어려운 작업이다. 반면 모바일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청년층은 범죄 조직의 전화 지시에 따라 복잡한 전송 과정을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어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예방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검찰과 경찰 등 각 기관이 개별 운영 중인 서류 진위 확인 창구를 포털 사이트나 주요 금융 앱 첫 화면에 연동해 봄 직하다. 경찰청 수사국에서 추진한 보이스 피싱 근절 사업안에서도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참여를 통한 금융·통신 제도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가와 직장 내에서도 기본 형사사법 절차 교육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사법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구속영장을 전송하지 않으며 숙박업소 격리나 위치 보고를 요구하는 수사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동시에 금융권의 안전장치 강화가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평소 대출 이력이 없던 청년층이 모바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입금을 유예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대출 숙려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예적금을 연쇄 해지하거나 이체 한도를 급격히 상향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 징후가 포착될 때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플랫폼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거래를 자동 일시 정지하고 본인에게 심층 경고를 전달하는 2차 방어망이 체계화돼야 한다. 국내에서도 신규 대출을 막는 '여신 거래 안심 차단'이나 30분 단위의 '지연인출제도' 등이 운영 중이지만 '여신 거래 안심 차단'의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지연인출제도' 역시 완충 시간이 수십 분에 불과해 각각의 한계를 지닌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의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회 초년생의 비대면 자산 이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강제 지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과 은행협회는 지난 2023년 '머니 록(Money Lock)'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고객이 모바일 뱅킹 앱에서 특정 금액을 잠금 지정해 두면 해당 자금은 디지털 환경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원천 차단되며 해제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영국 역시 지난 2024년 '지급결제서비스 규정 개정안'을 통해 사기가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 은행이 송금 처리를 최대 4영업일까지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우리 금융당국도 의심 거래 시 입출금을 강제로 유예하거나 비대면 해제를 차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법제적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전에 본인 명의로 인증된 지갑이나 국내 법적 기준을 통과한 공인 거래소 지갑으로만 외부 출금을 허용하는 출금 통제 장치를 활성화할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100만 원 이상 송금 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 간 전송에만 적용될 뿐 범죄 조직이 지정한 해외 사설 개인 지갑이나 미제휴 거래소로의 송금은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범죄 조직은 이러한 빈틈을 공략해 피해자에게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해외 개인 지갑으로의 송금을 강요한다. 기존 트래블 룰의 사각지대를 메울 강력한 출금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

청년층을 겨냥한 피싱 범죄는 어렵게 얻은 첫 사회적 신분을 지키려는 간절함을 악용하는 사회 재난이다. 기술과 범죄 수법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사법 및 금융당국의 안전망 역시 강화돼야 할 때다.

*USDT: 암호화폐 발행사 테더 리미티드(Tether Limited)가 발행 · 유통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정인 기자 13jeongin@hufs.ac.kr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6.9.21.(월) - 10.7.(수)	2026.11.16.(월) - 12.2.(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6.9.21.(월) - 10.7.(수)	2026.11.16.(월) - 12.2.(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6.10.14.(수) 15:00	2026.12.9.(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6.10.17.(토) 10:00	2026.12.12.(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6.10.30.(금) 15:00	2026.12.24.(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6.11.1.(월) - 11.6.(금)	2026.12.28.(월) - 12.31.(목)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크전공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09.18(금) ~ 10.02(금)	2026.11.17(화) ~ 12.01(화)
고사장 발표	10.14(수) 15:00	12.09(수) 15:00
면접전형	10.17(토) 10:00 예정	12.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8(수) 14:00	12.23(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11.02(월) ~ 11.06(금)	12.28(월) ~ 12.31(목)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학과

3. 지원자격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다. 장학금 : 성적우수/순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빠르게 성장하는 숏드라마, 더디게 마련되는 안전장치

1~2분 분량의 세로 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숏드라마는 짧은 시간에 강한 몰입감을 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매주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은 해지하기 어렵고 자극적인 광고는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며 AI 숏드라마에서는 실존 인물의 얼굴이 동의 없이 도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사를 통해 △숏드라마의 확산 현황△숏드라마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숏드라마의 확산 현황

숏드라마 시청자 수가 1년 새 3배 넘게 늘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숏드라마는 1~2분 길이의 세로 영상 수십 편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드라마로 복수나 출생의 비밀과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빠른 전개로 풀어내는 콘텐츠이다.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숏드라마 앱의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8월 90만 명에서 이번 해 8월 298만 명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카카오벤처스는 지난 2024년 국내 숏드라마 시장규모를 약 6,5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숏드라마 플랫폼 비글루(Vigloo) 운영사 스푼랩스(Spoonlabs)는 오는 2028년 국내 숏드라마 시장 규모가 1조 5,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이 커지자 국내외 플랫폼도 잇따라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는 △비글루△숏차(SHORTCHA)△케이숏(K-Short)이 경쟁하고 있으며 △드라마박스(DramaBox)△드라마웨이브(DramaWave)△릴숏(ReelShort) 등 중국계 플랫폼도 국내 이용자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이들은 초반 회차를 SNS 광고를 통해 무료로 공개한 뒤 나머지 회차는 플랫폼 내 코인 결제나 주간 구독으로 판매한다. 숏드라마 구독료는 주간 2만 원에서 3만 원 선으로 한 달 내내 이용하면 8만 원이 넘는다. 상당한 구독료 부담으로 SNS에는 여러 사람이 구독료를 나눠 이용하는 이른바 '분철' 모집 글까지 등장했다.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숏드라마를 싸게 이용하기 위해 X(구 트위터)에 분철 모집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분철에 참여하려 했다"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AI로 만든 숏드라마가 시장의 주류로 떠올랐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번 해 1월에서 8월간 중국에서 공개된 숏폼 드라마 43만 편 가운데 AI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어섰다. 이처럼 AI 숏드라마가 급증한 원인은 시간적·금전적 효율성에 있다. 중국의 한 AI 영상 제작 감독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배우 섭외△세트 제작△촬영장 대여 비용이 들지 않아 제작비를 실사 촬영의 약 1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다"라며 "AI 활용 시 비용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에 따르면 비글루는 지난해 8월 AI를 도입하고 컴퓨터그래픽 작업 기간을 이전보다 10배 이상 줄여 숏드라마의 CG 작업을 2주 만에 완성했다. 더불어 이번 해 안에 전체 콘텐츠의 30%를 AI 콘텐츠로 채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숏드라마의 문제점

그러나 숏드라마에는 구독 해지가 어려워 원치 않는 결제가 반복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입은 앱 안에서 쉽게 끝나지만 해지를 위해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앱 마켓의 구독 관리 메뉴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일례로 드라마박스는 이용 기간 종료 24시간 전까지 구독을 해지하지 않으면 구독이 자동 갱신되고 앱을 삭제해도 구독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앱 마켓에 고지하고 있다. 이때 구독을 해지하려면 앱 마켓의 구독 관리 메뉴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특히 숏드라마 구독권은 주간 단위 상품이 많아 해지 시점을 놓치기 쉽다. 이에 더해 해외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숏드라마 시장 특성상 환불을 받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넷숏(NetShort) 이용 후기에는 1년 정기권을 결제한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자극적인 숏드라마가 광고를 통해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숏드라마는 광고 목적으로 초반 회차를 SNS에 올리는데 해당 영상에는 별도의 연령 확인 절차가 없다. 지난해 11월에는 노골적인 성적 연출이 담긴 숏드라마 광고가 SNS 상에서 성인 인증 없이 재생되기도 했다. A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성적인 노출이 과한 숏드라마가 연령제한 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영상들이 SNS 상에 떠도는 까닭은 연령 등급이 유료 본편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숏드라마 플랫폼은 넷플릭스(Netflix)처럼 스스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 작품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는다.

한편 AI 숏드라마에서는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도용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사진 몇 장만 있으면 촬영 없이도 그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중국 모델 크리스틴 리(Christin Lee)는 한 숏드라마의 악역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로 만들어졌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배우 이양첸시(易烊千璽) 측도 여러 AI 숏드라마가 그의 이미지를 도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반인도 예외가 아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 중국 누리꾼은 SNS에 올린 자신이 올린 사진이 허락 없이 드라마에 쓰여 탐욕스러운 인물로 그려졌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 배우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중국의 AI 드라마 감독 모정(莫爭)은 중국 매체 중신징웨이(中新經緯)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AI 영상 모델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대량으로 학습해 AI 인물들이 한국 배우를 닮게 됐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어떤 배우의 얼굴과 작품이 학습에 쓰였는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배우들은 자신을 닮은 AI 인물이 작품에 등장해도 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는 작품이 퍼진 뒤에야 드러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숏드라마가 일시적인 소비로만 그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으려면 이용자 보호 장치가 성장 속도를 따라잡아야 한다.

우선 구독 해지가 가입 만큼 간편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미국 매체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자동갱신법을 시행해 온라인으로 가입한 구독은 온라인에서 쉽게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으로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에 그친다. 해지 방해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잡한 구독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숏드라마 앱 안의 해지 기능과 주간 결제 갱신 전 알림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해외 사업자에게는 국내 이용자를 위한 환불 창구를 두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숏드라마 광고에도 본편과 같이 연령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콘텐츠 특성상 광고와 본편의 경계가 흐릿한 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광고에도 시청 연령을 고려한 규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에 광고 노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 제28조를 통해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미성년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나 행동을 추정하는 방식의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를 참고해 숏드라마 광고에 본편 등급을 표시하고 청소년관람불가 작품의 광고는 성인 인증을 거친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광고를 내보내는 SNS 플랫폼에는 미성년자 계정에 선정적인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I 숏드라마의 동의 없는 실존 인물 도용을 막으려면 학습 데이터 공개와 당사자 동의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8월부터 AI 법을 통해 범용 AI 제공업체가 학습 데이터의 요약을 공개하고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얼굴과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법률이 없다. 현재 시행 중인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허락 없이 영업에 쓰는 행위를 막고 있다. 그러나 보호 대상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름이나 얼굴만으로 광고나 상품 판매에 활용될 만큼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이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지난 1월 대표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으로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권리로 명시하고 AI 숏드라마 제작사와 플랫폼에는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와 실존 인물 외형 사용 시 서면 동의 확인을 의무화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제도적 안전장치가 함께 뒷받침될 때 숏드라마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의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정부 지정을 받은 사업자
**다크패턴(Dark Pattern):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원치 않는 결제나 구독 유지를 하게 만드는 온라인 화면 설계
***옵트아웃(Opt-out):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쓰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자신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목소리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이재명 대통령, 821조 예산안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821조 원 규모의 다음 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이번 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다음 해 예산안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 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 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다"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반영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화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지출하기보다 일부를 적립해 미래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됐으며 △교육과 인재△미래 성장동력△지방△청년 4개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세수 증가분을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미국 중간선거 여파에 코스피 급락… AI ·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 · 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규제 우려로 급락했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장 초반 전 거래일보다 1.82% 하락한 5,580.09로 출발한 뒤 낙폭을 확대했다. 특히 오전 10시 16분에는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일시 중단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른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이 꼽힌다. 민주당이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과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 데이터센터가 몰려 있는 텍사스의 주지사로 당선된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Gina Hinojosa)는 모든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즉시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회 **서울 도심 마라톤 교통 통제 논란… 시민 불편 최소화 과제로**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형 마라톤 대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소음△쓰레기△이동 제약△장시간 차량 정체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후원한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 1개에서 이번 해 23개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교통 통제는 이번 해 30차례를 넘겼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도심 마라톤 대회에서는 상암에서 여의도 도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막혔고 시내버스 190개 노선이 우회하면서 시민 불만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2일 SNS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최 측에 코스 조정을 여러 차례 요청하며 협의했지만 끝내 대규모 불편을 막지 못했다"라며 "다음 해 마라톤 대회 코스와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도심 마라톤 관리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다음 해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차량 우회 방안△코스 등 안전관리 계획을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 **미국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 민주당 상 · 하원 모두 장악**

미국 민주당이 현지 시각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연방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 의석 최소 54석과 하원 의석 최소 237석을 확보해 상 ·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캔자스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치러진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 · 하원 권력을 모두 탈환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이민△외교 등 주요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변혁적 변화를 이뤄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전례 없는 부패를 자행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예고했다.

유럽을 흔드는 시위의 물결, 무엇이 시민들을 움직였나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공교육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며 정부의 재정 정책과 대응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노동조합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약 80만 명이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는 △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 △교육△생활비△주거 문제 등을 내건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프랑스 정치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유럽 각국으로 번진 시위의 구조적 배경에 대해 강유덕 우리대학 Language & Trade 학부 교수 겸 EU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자.

강유덕 우리대학 Language & Trade 학부 교수

Q1. 지난 9월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공교육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며 정치 및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구체적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9월 중순 파리 외곽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사 부족△노후화된 학교 시설△대체교사 미충원 등이 주요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라는 대학 입학 선발 시스템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시위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학교별로 발생한 산발적인 시위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Q1-1. 교육 문제에 대한 불만이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 문제가 프랑스 사회에 오랫동안 축적돼 온 다양한 불만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조합△대학생△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사회적 불평등△임금과 연금△주거비 상승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높은 교육 수준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독립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가가 미래 세대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이후 이어진 마크롱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더해졌습니다. 노동시장 및 연금 개혁과 재정 건전화 정책이 사회적 저항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는 서로 다른 불만들이 한꺼번에 표출돼 나타난 '투쟁의 결집*' 현상에 가깝습니다.

Q2. 이번 시위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경제와 사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해 △가족정책△교육과 의료△연금 등 폭넓은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지출은 GDP의 약 57%에 달했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을 충분히 뒷받침할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누적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1%였고 국가 채무는 115.7%에 달했습니다. EU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부채 조달 및 차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재정 적자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2-1. 정부의 긴축 재정과 예산 갈등은 어떻게 시위로 이어졌으며 프랑스의 정치 제도가 이러한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프랑스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교사 충원△대학 정원 확대△학교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정 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상당한 세금을 거두지만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서 발생합니다.



▲사진 출처: 르몽드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도 재정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한 세력이 없어 하원은 △강경 우파△중도 세력△좌파 진영으로 분열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다음 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재정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3. 반복되는 시위가 보여주는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시민들이 기존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경제성장 둔화△공공부채 증가△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공해 왔던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치적 불신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프랑스의 현재 재정 상황과 정치 여건에서는 마크롱 정부 10년의 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매우 약화돼 있어 이러한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으로 이어진 시위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정치 및 경제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나요?

국가별 시위는 직접적인 원인과 주요 요구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벨기에에서는 교육비 상승과 과밀학급 등 교육 환경 문제가 화두에 올랐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의 교육 투자 축소와 국방비 확대 사이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임대료 상승△주택 가격△저임금 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시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생 시위가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학생운동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시위가 모두 프랑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각국에 이미 존재하던 사회적 불만이 프랑스 시위를 계기로 확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유럽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유럽 경제 및 국제적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시위의 경제적 영향은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나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규모 시위와 파업은 △교통△관광△물류 등 경제활동에 차질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위가 발생한다고 해서 유럽 경제 전체가 곧바로 침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재정 개혁이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과 정치적 교착상태에 직면하면 필요한 정책을 제때 시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국채금리 상승과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미래 산업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교육△디지털 인프라△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진행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6.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시위가 우리나라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뒤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저출산△청년층의 주거 및 고용 불안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더불어 △교육△산업 경쟁력 강화△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정된 국가 재정을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할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비용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럽의 학생 시위는 아직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세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이와 같은 유럽 내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시위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다음 해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조치가 발표됐지만 △공공서비스△불평등△생활비 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볼 때 △사회 보장 지출 증가△인구 고령화△청년층의 경제적 불안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별 시위가 종료되더라도 그 배경에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유럽의 몰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유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산업기반△인적자본 등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사회 모델을 변화한 환경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유럽의 시위 사태는 분기점에 선 유럽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결집(convergence des luttes): 다양한 사회집단의 불만이 하나의 저항운동으로 결합하는 현상.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외대학보 2026 학술 공모전 개최

▶공모 내용: 최근 이슈가 된 정치/경제/사회문화 중 하나를 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논설문 ex) 정치 – 한국 정치 문화의 양극화
▶접수 기간: 2026.11.7(토)~11.21(토)
▶응모 자격: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2학기 등록 재학 중인 학부생(서울/글로벌캠퍼스)
▶제출 방법: 구글폼을 통한 제출(https://forms.gle/LJpv1UXFd63XrCKx5)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트리, 관련 카드뉴스 확인
▶원고 서식: 함초롱바탕 폰트 12, 원고지 200자 기준 20매 내외
(분량 미준수 시 수상작에서 제외)
▶심사 기준: 내용(30) 논리(40) 표현(30)
▶시상: 대상 30만원 / 최우수상 20만원 / 우수상 10만원

▶기타 안내 사항:
1. 1인 1작품 출품 원칙
2. 출품된 작품이 심사 기준 및 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각주 및 참고 문헌 제외 카피 킬러 기준 표절률, AI 작성률 30% 이상 시 표절로 판명돼 수상 및 상금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은 표절 당사자에게 있음.
4. 공모전 일정은 외대학보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수상작은 편집을 거쳐 외대학보 지면에 게재될 수 있음.

▶문의: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DM (@hufspress_official)
또는 백채린 편집장 (010-4086-3310)



이어짐

사람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은 불완전한 생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과 이어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 부모님과 이어진 것을 시작으로 학교에서 선생님 및 친구들과 차례로 이어진다. 그들과 이어지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를 배우며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어지고 교류하는 과정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기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어짐'이라는 말은 참 뜻깊은 단어이다. 사람 간 이어짐의 형태는 다양하다. △가족△공통된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대학교 동기△호감을 가지고 사귀는 이성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이어짐은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다가가 이뤄지기도 하고 우연한 계기를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어지는 한 인간은 고립되지 않으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의 삶 역시 수많은 인연이 이어져 엮인 그물과 같다. 학창 시절을 지나 우리대학에 이르기까지 만난 수많은 인연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타인과 이어지는 것을 즐기는 나의 외향적인 성향 덕분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서는 일은 하나의 취미와도 같았다. 그래서 이번 학기 외대학보에서 활동하게 된 것은 내 삶에 매우 큰 전환점이 됐다. 순간적인 변덕에 가까운 지원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선 내 삶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다. 학보사에 들어오고 나서 더욱 많은 사람과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 당시 학보사 기자 활동은 통계나 수치를 보고 사실을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학보사 활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통계나 수치에는 집계 방식이나 해석 방식에 따라 개인의 주관이 섞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해관계자 다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통계로만 판단하면 편향된 정보를 받아들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사 작성을 위해선 많은 사람을 취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과 이어져야 비로소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학보사 활동을 하는 동안 △동아리연합회△총학생회△우리대학의 각 처와 기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뵐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까지 잘 알지 못했던 우리대학의 문제점도 자세히 알게 됐고 더욱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어느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취재하는 과정은 즐거운 일이자 배움의 기회가 됐다.

이제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에 학보사가 크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학보사는 많은 사람과 나를 이어주는 '이음새'로서 훌륭히 기능해주고 있다. 하지만 학보사라는 이음새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만을 이어준 것은 아니다. 추억과 역사 역시 이어줬다. △과거 학보를 거쳐 간 수많은 선임기자님△현재의 동료 기자분들△앞으로 들어올 후임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학보사의 추억과 역사는 이어지고 축적된다. 나 역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견고한 이음새가 돼 외대학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다. 세상과 나를 이어주고 멋진 추억을 선사해 준 외대학보에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마친다.



강승우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아이를 찾습니다'를 읽고]

그토록 헤매던 건

사람은 스쳐 지나가듯 무심했던 순간이 훗날 영원토록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김영하 작가의 단편집 〈오직 두 사람〉의 두 번째 단편 '아이를 찾습니다'는 찰나의 순간에 일상을 잃고 비참하게 무너지는 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다. 주인공 윤석과 아내 미라는 어느 여름날 대형마트에서 두 돌을 앞둔 아들 성민을 잃어버린다. 이별은 한순간이었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지극히 평범한 이 시간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순간이었음을 몰랐다. 인간은 자신이 보내고 있는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삶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곤 한다. 윤석은 쉬는 날 마트에 가자고 했던 미라를 탓했고 미라는 성민의 손을 놓친 윤석을 탓했다. 이들은 결국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유일한 존재인 서로를 탓하며 의미 없는 상처를 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데에만 전념하다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일상은 점점 무너져 갔다. 그 세월은 그들에게 죽어있던 시간과 다름이 없었다. 부부는 매일 전단지를 돌리며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몸소 깨닫는다. 실제로 우린 하루에도 수차례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지만 대부분 이에 무심하다.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일까. 만약 실종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무심한 세상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전부터 조현병 증세가 있던 미라는 아들의 실종 후 결국 미쳐버리고 말았다. 윤석은 직장과 건강을 모두 잃었고 정신도 피폐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11년 만에 그토록 기다려온 전화를 받은 윤석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다. 성민은 '종혁'이라는 이름으로 유괴범과 함께 컸으며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유괴범은 끝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11년 만에 만난 성민은 윤석이 그간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었다. 생긴 것도 달랐고 부부는 쓰지 않는 대구 사투리를 썼다. 무엇보다 죽은 유괴범을 엄마라고 불렀다.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10년 이상 떨어져 전혀 다르게 살아온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겨우 가족이 모였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러던 와중 미라는 성민이 집을 비운 사이 집을 나가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윤석과 성민은 몇 달 후 고향으로 내려갔고 고등학생이 된 성민은 집을 떠났다. 그로부터 2년 후 성민이 집을 떠날 때 함께 사라졌던 동네 여자아이 보람은 윤석을 찾아와 성민이 자신이 모아둔 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울먹이며 말한다. 윤석이 돈을 가져오자 평상 위에는 성민이 떠나 기를 여건이 안 되니 부탁한다는 메모와 함께 갓난아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성민과 보람의 아이였다. 윤석은 마치 잃어버렸던 두 돌의 성민을 이제야 만난 것처럼 작은 생명의 손을 꼭 쥐어본다. 소설 '아이를 찾습니다'는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주는 의미와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는 모호한 상실에 빠진 이들의 삶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가 훗날 그토록 찾아 헤매게 될 것이 지금 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보고]

특별함은 일상 속에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평소엔 못했던 일을 해내는 모습처럼 말이다. 하지만 상상과 현실 사이엔 차이가 있다. 원하는 일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상상에 머물던 한 사람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겪는 변화를 보여준다.

주인공 월터 미티(Walter Mitty)는 잡지사 '라이프(Life)'에서 16년째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반복되는 일상 속 현실에선 하지 못하는 일들을 상상으로 대신한다. 낯선 사람 앞에서 용감하게 행동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도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만 이뤄진다. 그러던 중 잡지의 마지막 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지 사진의 원본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월터는 사진작가 숀(Sean)이 보낸 사진을 찾기 위해 직접 여행을 떠난다. 월터의 여행은 그린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는 숀의 행방을 찾기 위해 헬기에 타야 했지만 헬기 조종사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탑승을 망설인다. 평소였다면 상상 속에서만 용기를 냈을 월터는 결국 헬기에 올라타고 바다에 뛰어들어 상어가 있는 바다를 헤엄치기까지 한다. 이후 아이슬란드에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긴 도로를 내려가다 활화산이 분출하는 상황까지 마주한다. 이 장면들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월터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눈표범 장면이었다. 월터는 오랫동안 찾아 헤맨 숀을 만나 함께 숀이 찾던 눈표범을 기다린다. 마침내 눈표범이 나타났지만 숀은 카메라를 들지 않고 그저 눈표범을 바라보며 '때로는 아름다운 순간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월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은 사진의 원본이었지만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사진으로 남길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이었다. 영화의 결말에 등장하는 잡지의 표지 사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숀이 선택한 마지막 표지의 사진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월터의 모습이었다. 월터가 찾던 특별한 순간은 이미 자신이 살아온 일상 속에 있었던 것이다. 영화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당시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시간이 지나고 중요한 기억으로 남기도 한다. 반대로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기도 한다. 지금은 사소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이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월터의 여정처럼 우리의 삶 역시 수많은 경험과 선택이 쌓이고 연결되면서 완성된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있는 것보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무언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월터가 사진을 찾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각자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삶은 특별한 단 하나의 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상에서의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

1120호 학보를 읽고

현재우 (중국 · 중외통 23)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변화의 길목에서 외대학보가 던진 질문들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외대학보 1120호를 펼치게 됐다. 1120호에선 다음 해 개교를 앞둔 새 캠퍼스부터 졸업 이후의 진로까지 우리대학이 마주한 변화와 그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3면에선 다음 해 개교를 앞둔 송도캠퍼스에 대해 다뤘다. 새롭게 문을 여는 캠퍼스인 만큼 △장학금 및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지역 특화 전문 인재 양성△학부 신설과 같은 기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사에선 그 이면에 놓인 △생활 인프라 부족△수업 선택권 제한△동아리 및 학생자치 운영의 어려움을 짚었다. 특히 송도캠퍼스 학생들이 서울캠퍼스로 몰리면 기존 학생들의 수업과 시설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해당 문제점이 송도캠퍼스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줬다. 기사에 언급된 타 대학의 다양한 선행 사례를 참고해 송도캠퍼스 학생들은 물론 기존 캠퍼스 학생들도 불편을 겪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

4면에선 여러 대학에서 운영 중인 현장실습학기제를 다뤘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학생이 전공 관련 산업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산학 연계 교육과정으로 학생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함께 정부와 대학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사는 △단순 노동력 활용△학생 교육과 안전 및 인권 보호 미흡△산재보험 미가입△문제 제기 및 구제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조명했다. 첫 실무 경험을 위해 현장실습을 고려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의 실질적인 관리와 보호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6면과 7면에선 특별 기획을 구성해 우리대학 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대해 들여다봤다. 기사는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현황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비교하며 우리대학 취업의 특성을 짚었고 진로취업지원센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고민과 학교의 지원 현황을 함께 담았다.

8면에선 최근 SNS를 통한 소비가 일상이 되면서 증가한 인플루언서 공동구매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기사에선 △가격△신뢰△책임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가를 내세운 공동구매 제품 5개 중 실제로 더 저렴했던 제품은 2개뿐이었다는 직접 비교를 통해 기사의 설득력을 한층 높였다. 공동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외 사례처럼 명확한 가격 표시 기준과 책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

이 외에도 1120호에는 공공기관 개편과 박선영 동문 변리사 인터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캠퍼스와 졸업 이후의 진로처럼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준 외대학보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학보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1120호 학보를 읽고

김도이 (공과 · 컴퓨터 26)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독자의 눈으로 본 1120호

하늘이 하나둘 노랗게 물들며 풍경은 점점 따뜻해져 가지만 체온은 내려가는 계절이 성큼 다가온다.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선 거리로 나선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간고사를 지나며 이번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숨 가쁘게 흘러가는 날들의 연속으로 느껴지던 어느 날 문득 우리대학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는지 궁금해 외대학보를 집어 들었다.

3면에선 학기 초 많은 풍문이 돌았던 삼원화 캠퍼스 구상이 실현되는 송도캠퍼스 개교를 다뤘다. 다음 해 개교를 앞두고 남아 있는 미해결 상태의 과제를 짚고 방향을 모색한 점이 의미 있게 읽혔다. 그중 선발 인원이 100명 남짓이라 동아리와 학생 자치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학교 측이 이들을 기존 캠퍼스에 소속시키겠다고 답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재학생이 체감할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학교가 이러한 한계를 먼저 인정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교 이후에도 송도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

4면에선 학생들이 교육과 노동 사이에서 소속이 불분명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상을 조명했다. 현장실습이 실무 교육보다 단순 노동력 활용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과 학생들의 안전 및 인권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끊어내야 할 악순환이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이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교수는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실습 과정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울러 학습과 수행을 평가함으로써 현장실습에 대한 대학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연계 기관과 대학이 함께 보호에 나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우는 현장실습학기제가 되길 기대한다.

6면과 7면에선 재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진로취업지원센터(이하 진취센터)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인공지능의 급성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진취센터에선 인공지능 활용 역량 인증 비교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실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취업 시장의 흐름에 맞춰 직무와 연계한 실습 및 프로젝트 수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학생들의 취업 길이 더 안정적으로 열리길 바란다. 진취센터의 지원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대학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서 살펴본 기사들 외에도 1120호에는 다양한 사안이 다뤄져 있다. 외대학보는 사회의 이면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다. 많은 일이 빠르게 밀려들어도 변치 않는 소망처럼 각 기자의 고심과 이야기가 담긴 외대학보가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당연함을 의심하는 시선

집단사고는 집단의 조화와 동의를 중시한 나머지 다른 의견이나 비판적 판단이 밀려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다수의 선택을 따르는 일이 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들 이렇게 하니까'라는 생각이 개인의 판단을 대신하면 문제는 쉽게 반복된다. 이번 외대학보 1121호는 캠퍼스의 공용 공간부터 알고리즘과 사회의 갈등까지 익숙한 분위기와 다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먼저 4면에선 양 캠퍼스 공용 공간의 자리 사유화 문제를 다뤘다. 외대학보의 현장 확인 결과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전자도서관 좌석 상당수가 짐만 놓인 채 비어 있었고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라운지에서도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사에선 사석화의 기준과 제재 방안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순찰 범위를 넓히는 한편 도서관 에티켓 카드처럼 학생 간 불편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5면에선 정식 출시를 앞둔 우리대학 학사 안내 챗봇 '홉또기'의 개발 현황과 개선 과제를 살펴봤다. 홉또기는 교내 여러 사이트에 흩어진 공지와 학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그러나 기사에서 확인한 홉또기의 답변에는 학과 정보가 잘못 연결되거나 공지의 신청 마감일과 학기 정보가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영어 외 언어 지원이 미비하고 학생 개인의 이수 내역을 반영하는 맞춤형 안내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따른다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다. 정보처는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공식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개인화 기능은 보안 검토를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면에선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과 그 대응 방안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에게 공범이나 구속 수사를 거론해 공포와 죄책감을 유발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기사는 기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금융 앱 등에 연결하고 대학가와 직장에서 형사사법 절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의심 거래의 송금이나 비대면 대출을 일시 보류하는 금융 안전장치와 가상자산 출금 통제의 보완도 제안했다.

9면에선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공교육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시위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한 배경과 영향을 살펴봤다. 프랑스 시위는 △교사 부족△낡은 학교 시설△대학 입학 선발 제도의 교육 기회 불평등 논란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공공서비스△사회적 불평등△임금·연금△주거비 등 누적된 불만으로 확대됐다. 이는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를 촉발했다. 강유덕 우리대학 Language & Trade 학부 교수 겸 EU 연구소장은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재정 지출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갈등과 청년층의 주거·고용 불안 등을 설명하며 누적된 사회경제적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 할수록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집단사고는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주변의 행동을 당연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거나 익숙한 정보만 반복해서 접하거나 다수의 목소리가 곧 정답이라고 여길 때 조용히 작동한다. 특히 기사를 쓰는 외대학보의 기자들일수록 이런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다들 그렇게 한다'라는 말 앞에서 한 번 더 질문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1121호를 발행한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기자들의 추천 논문



Research Article

aps
PSYCHOLOGICAL 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2015, Vol. 26(3) 259–273
© The Author(s) 2015
Reprints and permissions:
sagepub.com/journalsPermissions.nav
DOI: 10.1177/0956797614561044
pss.sagepub.com
SAGE

Dimorphous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Displays of Both Care and Aggression in Response to Cute Stimuli

Oriana R. Aragón, Margaret S. Clark, Rebecca L. Dyer, and John A. Bargh
Yale University

Abstract
Extremely positive experiences, and positive appraisals thereof, produce intense positive emotions that often generate both positive expressions (e.g., smiles) and expressions normatively reserved for negative emotions (e.g., tears). We developed a definition of these dimorphous expressions and tested the proposal that their function is to regulate emotions. We showed that individuals who express emotions in this dimorphous manner do so as a general response across a variety of emotionally provoking situations, which suggests that these expressions are responses to intense positive emotion rather than unique to one particular situation. We used cute stimuli (an elicitor of positive emotion) to demonstrate both the existence of these dimorphous expressions and to provide preliminary evidence of their function as regulators of emotion.

Keywords
emotion, emotion 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cute

Received 8/14/14; Revision accepted 11/1/14

Some people cry at graduations, at the birth of their children, when a hero returns from war, when they reach their goals, and when someone gives to another person unselfishly. Some concertgoers scream as if in horror in the presence of their teen idol, and some people playfully growl and express their desire to pinch a baby's cheeks. What these diverse situations have in common is that these positive experiences have elicited dimorphous expressions—not only positive expressions, but also expressions normatively associated with negative emotions (e.g., anger, sadness, and fear; Ekman & Friesen, 1971, 1986). During these dimorphous display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xpressions occur simultaneously in a disorganized manner, which leaves witnesses to rely o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to interpret them (Carroll & Russell, 1996; Zaki, Hennigan, Weber, & Ochsner, 2010).

The Structure of the Dimorphous Expression of Emotion

Highlighting points of consensus among emotion researchers, Gross, John, and Richards (2000) proposed a process model of emotion that begins with a stimulus event, followed by an appraisal of the event, an emotional experience, and then an expressive behavior. Dimorphous expressions of emotion resemble this process model but feature a distinct pattern of one stimulus event, one appraisal, one emotional experience, and two expressive behaviors.

To give an example, a person who has won $100 million in a lottery and appraised this event as an incredibly good thing might feel overwhelmed with happiness and express this feeling by both smiling and crying. Crying, which normatively expresses sadness, would seem to contradict the situation, the appraisal, and the positive emotions. The negative expression might be merely a facial display, or it might reflect the onset of an actual negative emotion.[2] At this point, we are not making a distinction on this matter, but we would note that one's

Corresponding Author:
Oriana R. Aragón, Department of Psychology, Yale University, 2 Hillhouse Ave., New Haven, CT 06520
E-mail: oriana.aragon@yale.edu

Downloaded from pss.sagepub.com at Yale University Library on December 1, 2014

"귀여워서 깨물어 버리고 싶다"라는 말은 진짜로 깨물어 버리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오리아나 아라곤은 감정을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항상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감정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ISSN 2005-060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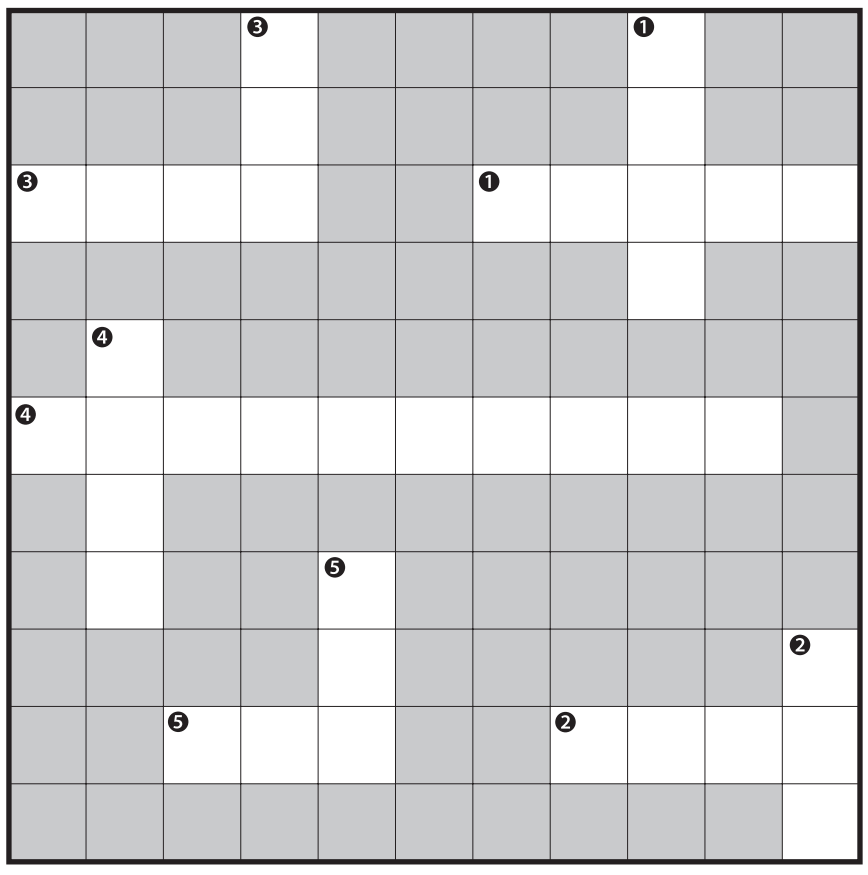
26*

대중음악

Korean Journal of Popular Music

심수봉부터 선미까지 1980~2010년대 여성 솔로 가수의 이별 노래를 분석한 논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망부석 설화에서 고려가요 〈가시리〉에 이르는 고전 텍스트의 변용을 통해 수동적 기다림에서 당당한 주체성으로 변화한 여성상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대중가요 노랫말에 담긴 사회적 시선의 변천사를 흥미롭게 읽어낼 수 있어 추천한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이처럼 청년층 피해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최근 피싱 범죄가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하는 일명 'OOOOO' 방식으로 진화한 데 있다. (7면 참조)
2. OOOO 제도는 OOOO 및 결시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에 대해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3면 참조)
3. 재난의 전선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용철 OOOO을 만나다. (12면 참조)
4. 우리대학 OOOOOOOOOO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캠퍼스 국제학사에서 청년들의 취업지원정책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6 청년정책 집중홍보 WEEK'를 운영했다. (1면 참조)
5. OOO 고등학생들의 공교육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며 정부의 재정 정책과 대응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9면 참조)

세로

1. 1~2분 분량의 세로 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OOOO는 짧은 시간에 강한 몰입감을 주며인기를 끌고 있다. (8면 참조)
2. "OOO란 도서관 내 짐을 방치하는 행위 및 좌석을 배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면 참조)
3. G-앵커사업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용인특례시와 협력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OOO) 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통합교육을 운영했다. (2면 참조)
4. G-앵커사업단은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트랙 수행을 위해 설치된 OOOO 전담 조직이다. (2면 참조)
5. 지난달 14일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과 박경은 우리대학 태국학과 학과장은 주한 OOO 대사관에서 OOOO어 교육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담을 진행했다. (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매대 위 종이의 가치

학생들이 실물 교재 대신 PDF 파일을 태블릿에 담아 다니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됐다. 이제 지하철에서 아침 신문을 읽는 사람은 보기 어려운 광경이다. 당장 서울캠퍼스 서점은 폐업한 지 오래다. 희귀해진 중고 서점의 책들마저 AI에 흡수될 위기에 놓여 있다. 수천 년 동안 아날로그 형태로 모아 온 인류의 기록은 오늘날 대부분 디지털화돼 영속성을 확보했다. 보존과 전달의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진화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록 시대에 아날로그 기록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 활자본의 가치는 정말로 빛을 잃었을까.

외대학보도 발행되는 매 호가 학보 홈페이지와 우리대학 e-book 자료홍보관에 하나둘 쌓여 어느덧 1121호에 이르렀다. 그와 동시에 실물 신문 4천 부가 두 캠퍼스에 배포된다. 학내 언론으로서 실물 신문이 인쇄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일차적 접근성이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는 눈에 보일 때 비로소 새겨진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학내 언론에 대한 주목도와 영향력은 결국 접근성으로 귀결된다.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글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홈페이지는 찾아가야 열리지만 매대 위의 신문은 강의실 앞에서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세월에 바래도 펼치기만 하면 읽힌다. 읽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학생도 지나가다 한 줄을 읽는다. 기록하는 이들의 책임 아래 수백 번, 수천 번 분석하고 취재한 글이 독자에게 닿지 않는다면 기사는 의미를 잃는다.

디지털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접근성을 한층 확장한다. 교내 매대에서 발견한 지면은 온라인을 통해 더 넓게, 더 멀리 퍼져 나간다. 퍼져 나간 신문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길에서, 대중교통에서, 집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실물 지면이 독자와의 첫 만남을 만든다면 디지털 기록은 그 만남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어간다. 두 매체가 연결될 때 기사의 도달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전파란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둘째, 정보의 몰입과 이해다. 학보는 우리대학을 바라보는 창(窓)으로서 학교와 그 너머의 사회를 조명한다. 무엇을 주요하게 다룰지, 어떤 기사를 앞에 배치할지, 어떤 사안을 더 깊게 조명할지 고민해 지면을 편집하는 일의 가치는 언론의 판단을 구현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실물 신문으로 비로소 드러난다.

거대한 지면을 펼쳐 읽는 경험은 편집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스페인 발렌시아대학의 파블로 델가도(Pablo Delgado) 연구진이 2018년 발표한 메타분석은 종이를 통한 독해가 디지털 매체보다 높은 이해도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해 버지니아 클린턴-리셀(Virginia Clinton-Lisell)과 크리스틴 리칭어(Christine Litzinger)의 연구에서도 독해 매체 가운데 종이가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특히 화면을 스크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종이 매체의 독해 우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책이나 종이를 손으로 직접 넘기는 물리적 행위는 화면을 마음대로 확대, 축소하고 스크롤하는 디지털 매체보다 더욱 직접적인 이해와 사유의 기회를 선사한다. 단편적인 정보 소비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고력을 길러주며, 한 사람의 뇌리에 새겨지는 전달성 역시 강하다.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이 진화했다고 해서 아날로그가 퇴화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고유한 가치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한다. 조용히 다가와 감각의 몰입을 돕고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신문의 독보적인 역할이다. 서로가 채울 수 없는 역할을 해내며, 역사의 기록에 또 하나의 흔적을 남긴다. 우리가 남기는 발자취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널리 알려지도록 오늘도 고민과 정성으로 편집된 학보가 지면에 인쇄된다. 매대에 가득 차 있던 지면 신문이 하나둘 줄어드는 모습을 바라본다. 쌓여 있는 신문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신문을 가져가는 손이 늘었다는 뜻이다. 우리대학의 오늘을 학생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기록하는 기사의 가치가 독자에게 닿고 있음을 체감해 반가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그 무게를 실감하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 독자의 손에 펼쳐져 그들의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갈 종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백채린(외대학보 편집장)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1chaelin@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백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재난의 전선에서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용철 소방청장을 만나다



최용철(국가전략 · 헝가리 90) 소방청장(이하 최 청장)은 우리대학 헝가리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소방재난행정학 석사를 거쳐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최 청장은 지난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입직한 뒤 의왕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방서장을 지냈다. 지난 2019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됐다가 2023년 소방청 대응총괄과장에서 2024년 소방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8월 소방청장으로 취임했다.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최 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지난 8월 우리나라 소방조직을 이끄는 소방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일해 왔지만 막상 119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니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집니다. 특히 소방조직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큽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기본의 회복'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소방의 존재 이유는 재난의 순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장에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소방관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화려한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우리대학 헝가리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헝가리학을 공부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변하고 냉전 질서가 무너지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89년 헝가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동유럽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헝가리학과에 관심을 갖게 한 배경이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성적에 맞춰 지원한 학과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Q3. 우리대학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학년 땐 수업을 빠지는 일도 잦았고 학점도 낮았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시던 어머니께서는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버거우셨는데 정작 저는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어학연수를 떠나던 친구들과 달리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제 현실이 서럽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대학 시절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착실하게 준비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방황도 길었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헛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좌절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황이 반드시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Q4. 소방공무원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부터 소방공무원을 꿈꿔오진 않았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졸업 후엔 신림동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소방간부후보생 채용 공고를 접했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합격 후 1년간의 소방간부후보생 교육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의미를 처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동료간의 신뢰△책임감△희생 정신을 배우면서 제 인생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명예△신뢰△헌신이라는 소방 정신은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됐습니다.

Q5.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방공무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덕목은 '정직'과 '헌신'입니다. 우선 정직은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소방관은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동료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위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했는지△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지△장비를 제대로 점검했는지가 동료의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방관에게 정직은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소방관의 헌신은 다른 일보다 더 깊은 직업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고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며 임무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구조·구급 기술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 역시 헌신입니다. 저는 자신의 생명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Q6. 청장님께서는 소방 현장 출동부터 행정업무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27년을 돌아보면 두 가지 경험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119구급서비스의 발전에 참여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 파견됐던 경험입니다. 지난 2005년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구급서비스 전략계획 2010'이라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119구조·구급 관련 법과 제도△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대원 병원 임상수련△구급지도의사 제도△소방헬기를 활용한 응급의료체계△펌블런스 등 여러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날 119구급서비스가 발전하는 과정에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입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됐고 저는 현장 지원을 위해 약 한 달 동안 헝가리에 파견됐습니다. 헝가리학과 출신인 제게는 특별한 의미의 파견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못했던 제가 수십 년 후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으로서 헝가리의 재난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 헝가리에서 활동하던 우리대학 동문들과 대학 시절 은사님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교와 동문이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느꼈고 우리대학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됐습니다. 우연히 선택했던 학과가 수십 년 뒤 제 공직 생활에서 그렇게 특별한 의미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헝가리 현장에서 도움을 주셨던 동문들과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Q7. 지난 27년간 소방간부로서 많은 소방대원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책임자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충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재난 현장에선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휘관에게 의사결정은 권한이기 이전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저 역시 지난 27년 동안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내린 판단이 옳았는지 혹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Q8. 지난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개혁안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조직이라면 먼저 조직 안에서 서로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동료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관행으로 동료를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를 조사한 결과 부당함을 겪고도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명 제보 및 신고자 보호 강화△중앙 감찰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지역 간 지휘관 인사 교류를 통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든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가 공정하게 확인되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소방관이 동료와 조직을 신뢰할 수 있어야 국민도 소방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이번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Q9.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소방청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소방의 기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I와 첨단 장비가 발전해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과 지휘관입니다. 소방관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철저한 훈련과 책임 있는 지휘를 통해 국민과 대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119정신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 각자의 행동과 조직 문화 속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소방청장직을 떠난 뒤에도 기본에 충실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119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보람 있는 공직 생활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Q10.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첨단 소방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고 AI가 재난 상황을 분석하며 무인장비가 사람을 구조하는 시대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생명이 걸린 순간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 책임을 지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방관에게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능력뿐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힘과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며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정직과 책임△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의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대학 시절에는 미래가 막막했고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직업에서 삶의 방향을 찾았고 그 후에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길이 조금 늦게 보이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대학의 배움과 인연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언젠가 소중한 자산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